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단독 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단독 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시었다.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드높은 열망과 진취적인 노력, 비상한 결단에 의하여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헬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이 하노이로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2월 27일 18시 30분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역사적인 두번째 상봉과 단독환담, 만찬이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류하시는 《멜리아》호텔앞에는 이 세기적인 만남을 취재하

고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과 하노이 시민들,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인파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용차를 타시고 경호차량들의 호위를 받으시며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상봉장소인 《메트로폴》호텔에 도착하시었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상봉하시게 될 《메트로폴》호텔의 《라 베란다》면담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8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지난해 싱가포르수뇌회담과정과 그 이후 여러차례의 친서교환을 비롯한 계기들을 통하여 친분이 두터워지신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덕담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낯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 버리고 극복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노이까지 왔으며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고 하시면서 이번 회담에서 모두가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것이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이번 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어 단독환담을 진행하시면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단독환담을 마친 후 친교만찬을 함께 하시

었다.

우리측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상대측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백악관 비서실장 대리 마이크 말베이니가 참석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을 모시고 두 나라 인사들이 윈락에 친근하게 둘러앉아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싱가포르수뇌상봉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하노이수뇌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찬이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과 작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회담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멜리아》호텔로 향하시었다.